



Issue Briefing

2017 EAI 대선패널 1차조사 주요결과 및 평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원심력 주관적 이념성향 평가의 진보화와 정책선호도의 불일치

2017년 4월 27일

배진석_고려대 국제교육원 연구교수

1. 응답자 이념성향의 변화: 진보 늘고 보수 줄어

- 진보 10.9%p 증가해 34.2%, 보수 9% 감소해 24.9%
- 진보 대 보수의 세력분포 반전

2. 유권자 이념변화에 대응하는 후보자

- 응답자 이념성향의 “진보화”
- 후보자 이념성향은 원심력으로 작동: 문 “좌향좌”, 안/홍 “우향우”
- 안철수의 이종고: “중도 지지층 이탈” 대 “보수텃밭 경쟁”

3. 후보자 지지율과 연동되는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2030에서 50%돌파, 60대 이상은 여전히 취약
- 더불어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 두 배 육박
- 대구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1위

4. 유권자 이념성향과 역대 대통령 선호도

- 노무현 47.3% > 박정희 19.8% > 김대중 14.3%
- 박정희 20% 이하는 초유의 일
- TK에서도 박정희-노무현 비등

5. 지지층의 동태적 변화: 2012대선 - 2016총선 - 2017대선

- 박근혜 투표층의 41.5%는 안철수로 이동
-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자의 절반만 안철수 지지
- 구 여권 지지층의 탈정당화 (de-alignment)

6. 문 지지층의 이념적 구성

- 보수 줄고 진보 늘어난 유권자 이념 구성변화로 선두 유지
- 박근혜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일 가능성

7. 한국 유권자는 과연 진보로 이동했는가?

- 주요 쟁점이슈의 양극화
- 사드배치 찬성 > 반대, 국민통합 > 적폐청산

8. 후보별 호감도 특징

- 문: 호감도 1위, 열렬 지지층과 적극 반대층 공존
- 안: 무난한 2위, 열렬 지지층도 적극 반대층도 부재
- 홍: 두드러지는 적극 반대층

9. 지지자별 당선가능성 전망

- 전체 68.2%가 문 후보 당선 전망, 안 후보 당선은 23.2%
- 지지자 99%가 문 후보 당선 예상, 안 후보 지지자 35.9%는 문 후보 당선 예상



<요 약>

- 유권자 이념성향의 변화: 2012년 대선 전에 비해 진보는 10.9%p 증가하고 보수는 9.0%p 감소 - 진보 대 보수의 세력분포 반전
- 응답자 평균이념 5.4에서 4.9로 진보 방향 이동
- “문-안 양강구도의 붕괴” 1-2위 후보격차는 14.2%p
- 유권자 이념분포 변화에 따라 후보자 이념 위치의 원심력 작동
- 2012년 4.10이었던 문 후보는 3.4로 “좌향좌”: 지지자 평균(4.0)보다 더 진보적, 양강구도 재현되면 족쇄 우려
- 2012년 4.30이었던 안 후보는 5.4로 “우향우”: 지지자 평균(5.4)과 일치, “중도층 이탈”과 “보수후보와 경쟁”의 딜레마
- 2012년 박근혜(7.1)보다 홍 후보는 더 “우향우”(7.8): 지지자 평균(7.3)보다 더 보수적
- 역대대통령 선호도 1위 노무현 (47.3%), 박정희는 처음으로 20% 아래로 하락
- 2012 대선-2016 총선-2017 대선 간 지지층의 동태적 변화
- 지난 대선 박근혜 지지자의 41.5%는 안철수로 이동, 17%만 홍준표에 잔류.
- 2016 총선 국민의당 지지자의 54.5%만 안철수에 잔류, 29.1%는 문재인으로.
- 문재인 안정적 선두 유지는 유권자 이념성향 변화에서 비롯. 탄핵가결 이후 유입된 신규 지지층은 자력획득 아니라 국정농단의 반사이익
- 주요 쟁점의 양극화: 한국 유권자는 과연 진보로 이동했는가?
- 이슈 별 태도는 주관적 이념성향 평가와 불일치: 문 후보 주장과 배치되는 국민 인식 - 국민통합 > 적폐청산, 사드배치 찬성 > 반대
- 유권자 이념의 “진보화”는 정책선호의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절차적 문제제기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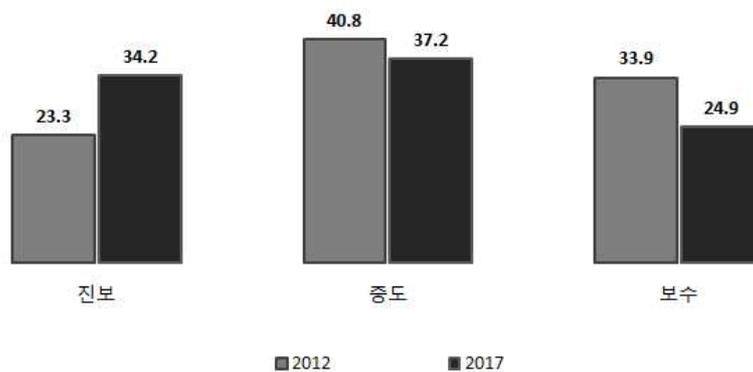


1. 응답자 이념성향의 변화: 진보 늘고 보수 줄어

- 진보 10.9%p 증가해 34.2%, 보수 9%p 감소해 24.9%
- 진보 대 보수의 세력분포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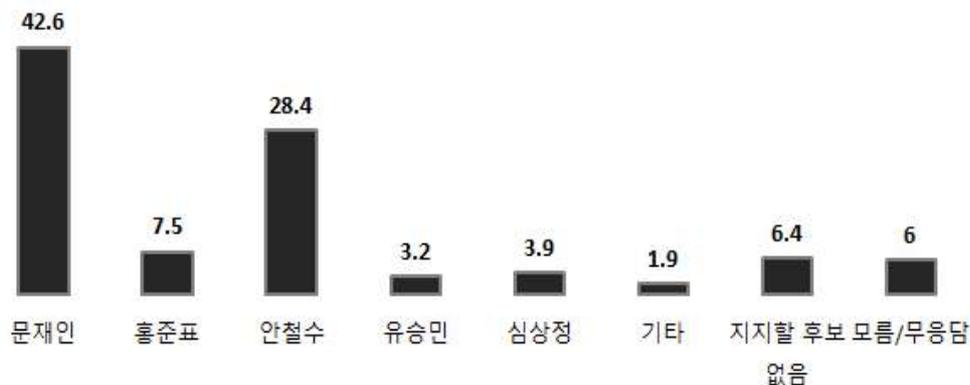
- 진보와 보수의 세력분포가 반전됐다. 자기 이념성향을 묻는 질문에 진보라고 답한 응답이 34.2%, 중도라고 답한 응답이 37.2%, 그리고 보수라고 답한 응답이 24.9%로 각각 조사됐다. [그림 1] 참조
- 이 조사결과는 2012년 대통령 선거 3주 전에 실시된 EAI 2012 총선대선 패널조사(5차)와 비교할 때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당시 같은 질문에 진보라고 답한 응답은 23.3%, 중도라고 답한 응답은 40.8%, 보수라고 답한 응답은 33.9%였다. 진보가 10.9%p 증가했고, 보수는 9%p 감소한 셈이다. 4년 반 만에 중도를 사이에 두고 보수와 진보의 크기가 고스란히 반전됐다.

[그림 1] 응답자 자기 이념성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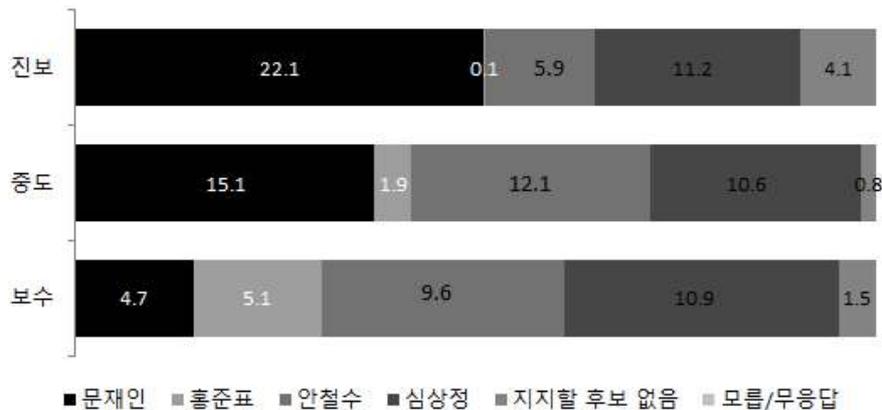
- 이념성향의 변화는 후보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후보 42.6%, 안철수 후보 28.4%로,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14.2%p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양강구도의 붕괴”와 같은 맥락이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대선후보 지지도(%)



- 문 후보는 진보 응답자의 3분의 2(66%)와 중도 응답자의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 안 후보는 중도 및 보수 응답자로부터 각각 32.0%, 37.7%의 지지를 얻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응답자 이념성향별 지지후보



- 진보는 문 후보로 비교적 결집된 반면, 보수는 중도성향으로 인식되는 안 후보로 결집되지 못했다. 문 후보는 34.2%로 파이가 커진 진보층의 비교적 집중된 지지를 획득했지만, 안 후보는 24.9%로 파이가 줄어든 보수층의 집중 지지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중도층에서도 안 후보는 문 후보 지지율의 80%에 그쳤다. 그 결과가 두 후보 간 14.2%p 차이로 나타났다.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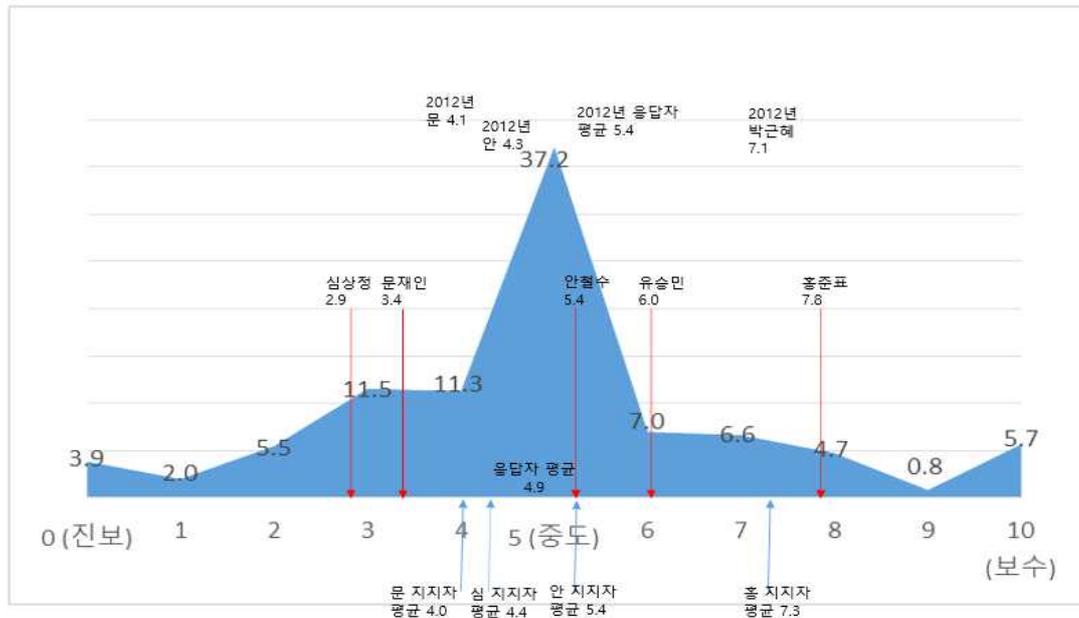
[그림 4] 문재인-안철수 지지층의 이념성향



2. 유권자 이념변화에 대응하는 후보자

- 응답자 이념성향의 “진보화”
- 후보자 이념성향은 원심력으로 작동: 문 “좌향좌”, 안/홍 “우향우”
- 안철수의 이중고: “중도 지지층 이탈” 대 “보수텃밭 경쟁”

[그림 5] 응답자 이념별 분포 및 후보자 이념 위치



- 자신의 이념성향을 “매우 진보적이면 0점, 중도적이면 5점, 매우 보수적이면 10점”으로 0과 10사이에 배치시킨 결과 응답자 평균 이념성향은 4.9로 조사됐다. 2012년 대선 직전 시기 조사 결과인 5.4보다 약 0.5만큼 진보 방향으로 이동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수가 줄어들고 진보가 늘어난 결과이다.
- 응답자의 이념성향은 대체로 진보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주요 후보의 이념 위치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에게 주요 후보의 이념성향을 0에서 10 사이로 평가하게 한 결과 왼쪽부터 심상정 2.9, 문재인 3.4, 안철수 5.4, 유승민 6.0, 그리고 홍준표 7.8로 나타났다.
- 2012년 대선 직전과 비교할 때 주요 후보의 이동방향은 상이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조사에서 4.1로 평가된 것에 비해 진보 방향으로 0.7만큼 이동했다. 같은 시기 문 후보와 단일화 공방을 겪었던 안 후보는 당시 4.3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안 후보가 5.4로서 2012년에 비해 1.1만큼 보수 방향으로 이동했다. 변화의 폭은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컸다. 홍준표 후보는 2012년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7.1)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인식했다.
- 조사 결과 문 후보의 이념성향은 문 후보 지지자들의 평균이념성향 4.0보다 진보 쪽에 위치했다. 안 후보는 지지자들의 평균이념성향 5.4와 일치했고, 홍 후보는 지지자 평균 (7.3)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인식됐다.
- 문 후보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적폐청산”을 구호로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혹은 “국민통합” 주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 응답자들에게는 문 후보를 더 진보적으로 보이게 만든 듯하다. 현재까지 문 후보의 우위는 증가한 진보층 유권자 세력결집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보수 후보들과 안철수 후보간에 단일화가 성사되어 다시 양강구도로 대선정국이 재편될 경우 지금의 진보적 스탠스가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진보층 응답자보다 더 큰 규모인 중도층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만들기 위해 안 후보가 2012년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가 응답자들에게 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강구도를 무리하게 추진해 현재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응답자 이념분포상 가장 빈도가 높은 중도층(총 응답자의 37.2%)의 이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중도층에서도 문 후보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 내에서 문 39.8%, 안 32.0%). 또한 2012년에 비해 9%p 줄어든 보수층에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버티고 있다. 안 후보가 현재보다 더 진보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보수층 응답자들은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가 작아진 보수층 유권자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 정체현상의 딜레마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 후보자 토론 이후 지지율 상승세인 심상정 후보는 양강구도가 깨지고 문재인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면, 현재 심 후보 이념위치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 응답자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심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23.5%에 그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표 1 참조]. 문-안 양강구도를 우려하는 진보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 점에서 심 후보의 이념적 위치보다 더 진보 쪽에 위치한 최소 12% 가량 응답자들의 선택이 “양강구도”의 전개와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심 후보 지지자들의 평균 이념성향이 4.4로서 심 후보 이념성향(2.9)은 물론 문재인 후보(3.4)와 그 지지자들의 평균(4.0)보다 더 오른쪽이라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표 1] 정당 지지별 후보자 지지도

	조사완료 사례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타	지지할 후보가 없다	모름/무응답
	(1500)	42.6	7.5	28.4	3.2	3.9	1.9	6.4	6.0
더불어민주당	(567)	84.9	0.6	5.6	0.7	2.0	0.7	2.4	3.2
자유한국당	(133)	0.0	59.4	25.5	0.7	0.7	2.0	6.1	5.5
국민의당	(258)	5.9	1.6	83.7	1.5	1.1	0.8	2.0	3.5
바른정당	(71)	7.9	1.3	37.4	33.0	3.1	0.0	7.4	9.9
정의당	(96)	59.5	0.0	5.1	4.2	23.5	3.1	0.0	4.6
기타정당	(51)	18.2	5.9	25.1	4.2	7.9	30.8	7.9	0.0
없음/모름/무응답	(324)	20.5	7.2	31.6	3.2	4.7	0.6	18.6	13.5



3. 후보자 지지율과 연동되는 정당 지지도

- 더민주당 2030에서 50%돌파, 60대 이상은 여전히 취약
 - 더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 두 배 육박
 - 대구경북에서도 더민주당 1위
- [표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자당 후보 지지율은 84.9%로서 가장 높다. 정당 지지도는 문 후보 지지율을 떠받치는 근거가 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38.2% 지지율로 국민의당 지지율 17.1%의 두 배를 넘어섰다. [표 2 참조]
 - 더불어민주당은 60대 이상에서 국민의당보다 뒤쳐지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50%를 넘어서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도 혹은 보수정당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부분의 호남지역 지역구를 장악했던 국민의당은 이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부근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지역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35% 지지율을 보여 자유한국당(14.6%)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표 2] 연령별/거주지역별 정당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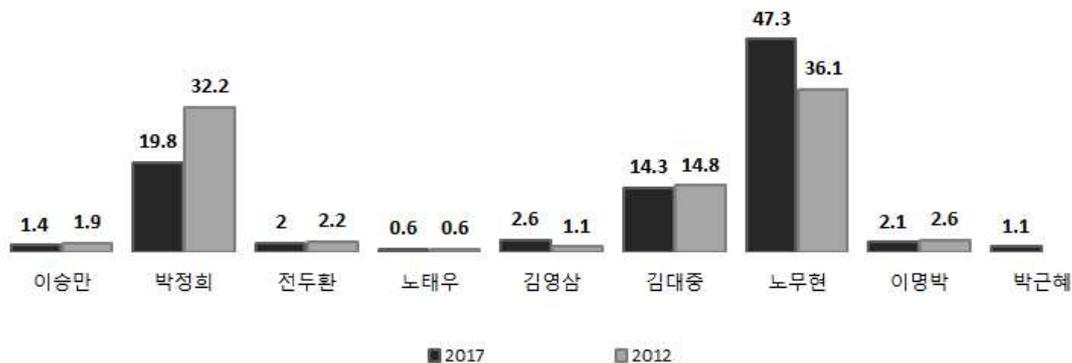
	조사완료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하는 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
	(1500)	38.2	8.6	17.1	4.6	6.3	3.4	20.3	1.5
연령									
19-29세	(219)	54.5	0.9	8.1	1.7	6.0	4.1	21.9	2.8
30-39세	(267)	51.9	2.6	7.8	7.1	7.9	2.3	19.7	0.8
40-49세	(323)	43.4	3.3	12.6	4.6	11.0	5.2	18.9	1.0
50-59세	(340)	32.4	11.1	17.9	5.0	5.9	3.2	22.7	1.7
60-69세	(202)	19.8	22.0	33.2	3.8	2.4	3.1	15.3	0.5
70세 이상	(149)	13.4	20.2	34.1	5.5	0.7	1.3	22.5	2.2
거주지역									
서울	(294)	39.1	4.8	21.8	4.2	6.5	2.3	20.4	0.9
인천/경기	(449)	38.4	7.3	16.3	4.5	9.1	3.5	19.5	1.3
대전/충청/세종	(161)	39.0	8.2	19.2	4.4	4.6	2.7	18.4	3.4
광주/전라	(149)	48.0	0.7	25.4	0.7	3.7	2.7	18.2	0.7
대구/경북	(153)	35.0	14.6	12.3	8.0	5.9	3.9	18.9	1.3
부산/울산/경남	(232)	34.7	15.1	9.0	5.8	4.2	4.3	25.3	1.5
강원/제주	(62)	27.9	17.5	17.7	4.7	4.7	6.8	18.9	1.9



4. 유권자 이념성향과 역대 대통령 선호도

- 노무현 47.3% > 박정희 19.8% > 김대중 14.3%
- 박정희 20% 이하는 초유의 일
- TK에서도 박정희-노무현 비등

[그림 6] 역대 대통령 선호도



- 유권자 이념성향의 변화는 역대 대통령 선호도에도 반영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호도가 47.3%로 선두를 달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19.8%로 2위, 김대중 대통령이 14.3%로 그 뒤를 이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선호도가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문항이 조사된 이후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주목할 만한 결과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인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이 지역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선호도(36.6%)는 박정희 대통령의 선호도(37.9%)에 거의 근접했다.
-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1위로 제일 선호하는 역대 대통령으로 조사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호도는 1.1%로 최하위인 노태우 대통령(0.6%) 다음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5. 지지층의 동태적 변화: 2012대선 - 2016총선 - 2017대선

- 박근혜 투표층의 41.5%는 안철수로 이동
-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자의 절반만 안철수 지지
- 구 여권 지지층의 탈정당화 (de-alignment)

- 지난 대선과 총선 때의 지지후보 혹은 정당을 통해 유권자 지지층 이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 응답자의 2012년 대선 지지후보 및 2016년 총선 비례대표 지지정당 응답률은 실제 선거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이번 조사 샘플링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억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조사문항은 지지층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선에서 제한적인 설명력을 갖는다.
- 조사문항의 설명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지지 이동은 매우 동태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41.5%는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에게는 17.0%가 남았을 뿐이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39.4%는 안철수 후보 지지로 돌아섰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응답자는 24.0%에 불과했다.
- “지지할 후보가 없다” 혹은 “모름 및 무응답” 비율도 흥미로운 결과다. 박근혜(대선)-새누리당(총선) 지지 응답자와 문재인(대선)-민주당(총선) 지지 응답자 간에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구 여당에서 이탈한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70.4%는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지했다. 안철수 후보로 이동한 18.0%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안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의 지지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69.9%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유지했다.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응답자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54.5%로 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29.1%는 문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당 지지세력의 이탈이 보이는 대목이다.
- 총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10.9%에 그쳤고, 문 후보 지지자가 73.0%였다. 총선과 대선에서 달리 나타나는 진보세력의 투표행태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2012년 대선/2016년 총선의 정치적 선택과 후보자별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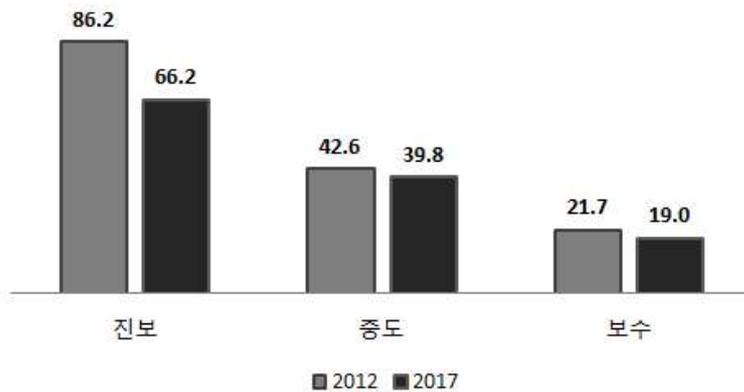
	조사원료 사례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타	지지할 후보가 없다	모름/ 무응답
지난대선지지후보	(1500)	42.6	7.5	28.4	3.2	3.9	1.9	6.4	6.0
박근혜	(573)	15.1	17.0	41.5	4.8	2.3	2.2	8.6	8.6
문재인	(647)	70.4	0.8	18.0	0.6	4.2	0.9	2.8	2.3
기타후보	(73)	35.0	0.0	28.2	8.1	12.0	5.8	6.8	4.3
없음/무응답	(207)	34.2	5.0	25.8	5.3	4.7	3.1	11.3	10.6
지난총선비례정당									
새누리당	(390)	9.5	24.0	39.4	4.2	2.7	2.9	9.5	7.8
민주당	(497)	69.9	0.9	16.1	2.5	3.4	0.9	2.5	3.9
국민의당	(225)	29.1	2.7	54.5	2.8	2.6	0.9	4.2	3.2
정의당	(144)	73.0	0.0	8.4	3.0	10.9	1.4	1.7	1.5
기타	(37)	50.6	3.0	13.0	4.7	8.1	7.2	8.4	5.1
없음/무응답	(207)	30.5	3.8	26.9	3.4	3.5	3.0	15.2	13.7



6. 문 지지층의 이념적 구성

- 보수 줄고 진보 늘어난 유권자 이념 구성변화로 선두 유지
 - 박근혜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일 가능성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진보층의 86.2%, 중도층의 42.6%, 그리고 보수층의 21.7%의 지지를 얻었지만 패배했다. [2012 EAI 총선대선패널 7차 조사] 박근혜 후보와 양자구도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2017년 대선과 큰 차이가 있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2년 선거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진보 지지층보다 최소 10%p 이상 큰 규모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림 7 참조]

[그림 7] 문재인 지지층의 이념 성향별 구성 비교: 2012년 대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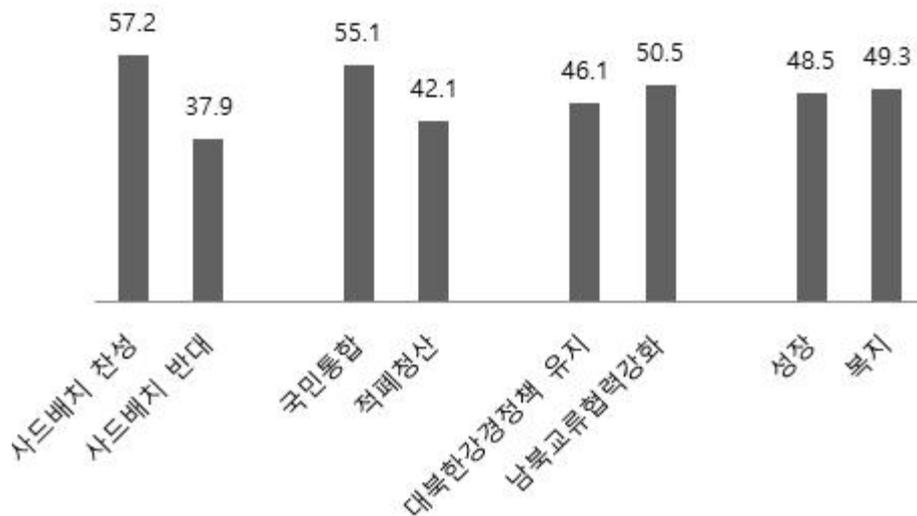


- 2017년 현재 진보층 지지비율이 2012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2.6% 지지율로 안정적인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 이념성향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보수가 줄어들고 진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이 유권자 이념성향의 변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현재의 다자구도 선거 역시 탄핵사태의 여파로 보수의 분열이 나타나고 그 빈틈을 안철수 후보가 중도 혹은 중도보수의 스탠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문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다가 국회 탄핵가결을 기점으로 30%대 중반 대까지 급상승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기존 지지층에다가 탄핵가결 이후 유입된 신진 지지층이 더해져 현재의 문 후보 지지율이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 유입된 지지층은 민주당과 문 후보의 자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7. 한국 유권자는 과연 진보로 이동했는가?

- 주요 쟁점이슈의 양극화
- 사드배치 찬성 > 반대, 국민통합 > 적폐청산

[그림 8] 주요 쟁점이슈에 대한 인식



- 응답자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진보 응답자가 늘어나고 보수 응답자가 줄었다. 문재인 후보의 선전도 유권자 이념성향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대선 정국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주관적 이념성향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표 4 참조]
- 사드배치 찬성은 57.2%로서 반대 37.9%보다 20%가량 높게 조사됐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더 높지만 나머지 응답자에서는 사드배치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 적폐청산 대 국민통합 이슈에서는 국민통합이 13% 가량 더 높게 조사됐다. 역시 문 후보, 심 후보 지지세력에서는 적폐청산이 다소 앞서지만, 나머지 응답자에서는 국민통합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 이상 두 이슈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국민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 강화와 강경정책 유지가 거의 반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 후보, 심 후보 지지세력과 나머지 후보 지지세력의 의견 차이는 매우 크다.
- 복지 대 성장 논쟁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후보별 지지세력 간 의견 차이가 역시 매우 크다.
- 결국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에서는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주요 이슈에서는 그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이런 불일치는 자기이념 평가가 구체적 이슈에 대한 관점에 기반하기보다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대 등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준법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서 유권자 이념성향이 진보로 이동했다는 가설은 제한적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이념성향의 평가가 정책선호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후보로 결집되어 있는 지지세력이 선거 과정 혹은 선거 이후에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의외로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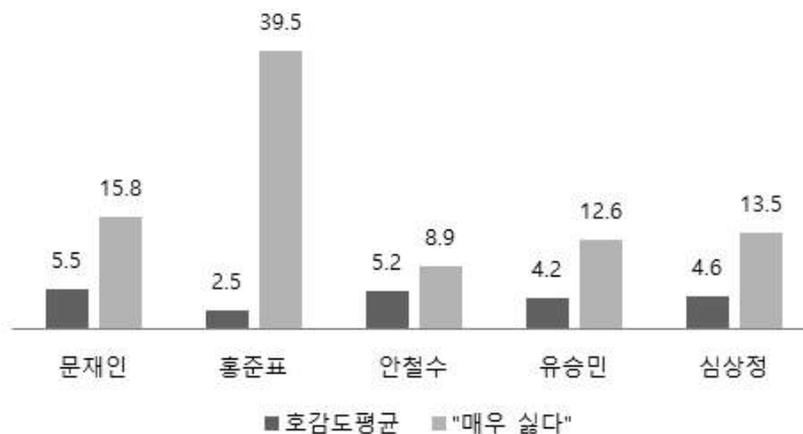
[표 4] 주요 이슈에 관한 후보 지지별 인식

	조사완료 사례수	사드배치 찬성	사드배치 반대	적폐청산 더 중요	국민통합 더 중요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	대북한 강경정책 유지강화	복지 더 중요	성장 더 중요
	(1500)	57.2	37.9	42.1	55.1	50.5	46.1	49.3	48.5
문재인	(636)	35.6	59.9	61.9	36.9	72.3	26.4	64.6	33.8
홍준표	(114)	94.1	4.9	24.9	71.5	20.4	74.8	25.5	70.7
안철수	(433)	77.4	18.9	24.0	73.7	37.1	59.2	33.5	65.2
유승민	(48)	67.8	29.8	26.2	73.8	19.0	74.8	57.4	38.3
심상정	(58)	40.5	55.7	54.7	43.6	62.1	34.7	72.4	26.2
기타	(29)	78.4	21.6	29.8	60.0	24.2	75.8	57.7	39.3
없음/모름/무응답	(182)	61.7	25.1	27.8	63.3	32.7	58.2	36.5	58.3

8. 후보별 호감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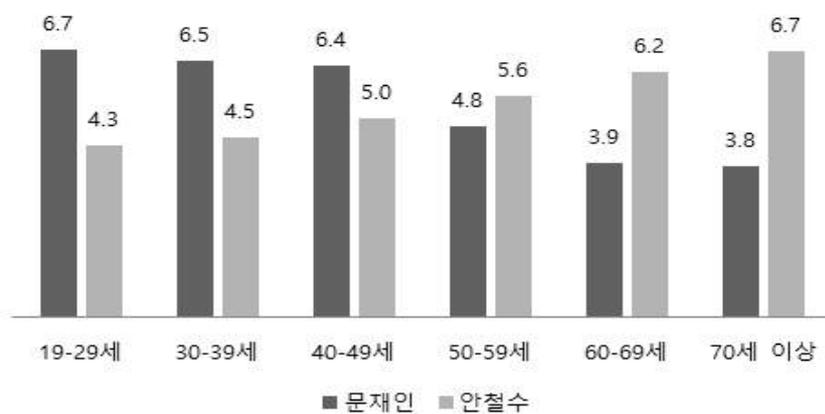
- 문: 호감도 1위, 열렬 지지층과 적극 반대층 공존
- 안: 무난한 2위, 열렬 지지층도 적극 반대층도 부재
- 홍: 두드러지는 적극 반대층

[그림 9] 후보별 평균 호감도(0~10) 및 비호감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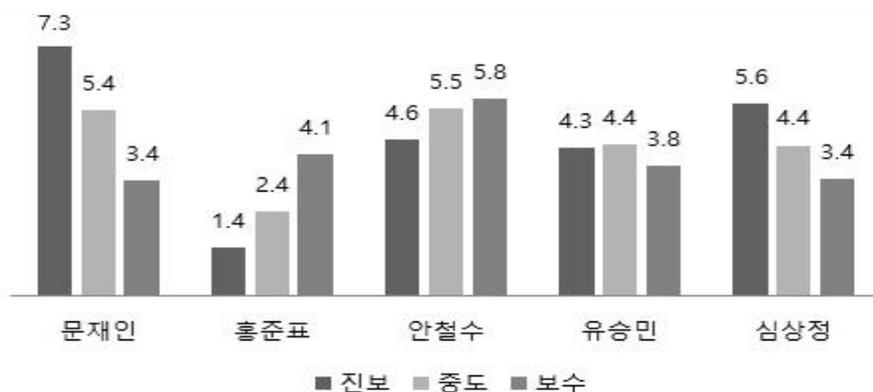
- 문재인 후보의 호감도가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에 앞섰다. “다음 후보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문 후보의 호감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5.5, 안철수 후보는 5.2로 조사됐다.
- 홍준표 후보는 “매우 싫다”(10점 만점에 0점으로 표시)라는 평가가 전체 응답자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호감 강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이다. 문 후보가 15.8%로 뒤를 이었다. 안 후보의 8.9%에 두 배 가까운 규모다.

[그림 10] 연령대별 문-안 호감도 비교



-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연령대별 평균 호감도는 대조적이다. 문 후보는 20대에서, 안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문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안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 이념 성향에 따라 후보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크다. 문 후보는 진보층에서 7.3으로 압도적인 호감을 얻지만, 보수층에서는 3.4로 심 후보와 함께 최하위로 조사됐다. 열렬 지지층이 있지만 극렬반대층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 후보는 보수 (5.8) > 중도 (5.5) > 진보 (4.6) 순의 호감도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 호감도의 차이가 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작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열렬 지지층은 없지만 극렬 반대층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11] 유권자 이념 성향별 후보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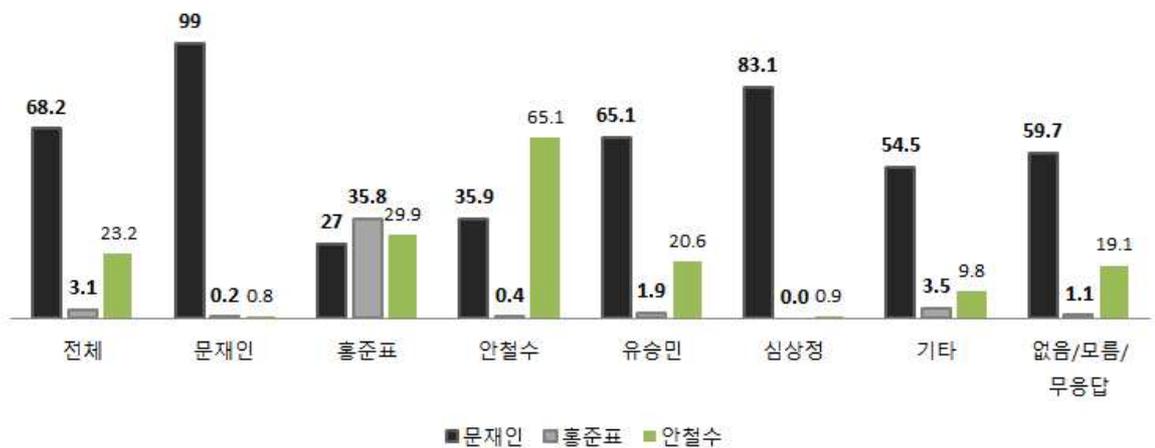


- 홍 후보는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호감도로 조사됐다. 유 후보는 보수보다 중도와 진보에서 약간 더 높은 호감도를 얻었지만, 그 편차는 미미하다. 심 후보도 문 후보와 이념별 호감도의 순서는 같지만 편차는 더 작았다.

9. 지지자별 당선가능성 전망

- 전체 68.2%가 문 후보 당선 전망, 안 후보 당선은 23.2%
- 지지자 99%가 문 후보 당선 예상, 안 후보 지지자 35.9%는 문 후보 당선 예상

[그림 12] 지지후보별 당선 가능성



-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8.2%가 문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안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응답자는 23.2%였다.
- 지지 후보별 당선가능성 예상은 편차가 컸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99.0%가 문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안 후보 지지자들의 60%가 안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지지자도 35.9%나 차지했다. 홍 후보 지지자들은 문, 안 후보에 비해 조금 높은 비율로 홍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EAI 2017 대선 패널 1차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재)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7년 4월 18 - 20일 (3일간) · 4월 18일: 13시-21시 · 4월 19일: 13시-21시 · 4월 20일: 13시-21시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대상 선정방법	지역·성·연령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1,500명 · 유무선 RDD 748명, 액세스 패널 752명 · 유선번호 245명, 무선번호 1,255명
응답률	19.5% (총 7,69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500명 응답 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pm 2.5\%$
질문내용	본 보고서 본문에 제시

EAI 2017 대선 패널조사 연구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이한수(아주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한정훈(서울대) · 배진석(고려대)
- 조사팀 : 오승호 · 전주현 (이상 한국리서치)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남지현 연구기획실 연구원(02-2277-1683 내선112, jhnam@eai.or.kr)

